

북한개발소식

07

2021 Jul | 통권 189호

| 이달의 주제 |

북한의 가정과 선교



북한의 가정과 선교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CONTENTS 2021 Jul

이달의 주제 :

북한의 가정과 선교



권두칼럼	01	북한의 가정과 선교
칼럼_1	09	오픈도어 현장사역자_ 북한의 여성과 가정
칼럼_2	14	정은찬_ 북한의 가정
칼럼_3	19	채경희_ 북한의 여성정책과 여성
탈북민 수기	24	편집부_ 주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북한 뉴스	29	김정은, 여맹대회에 서한...“여성 사랑하고 돕는 기풍 세워야” 외
서평	35	탈북자
북한 기도 제목	39	북한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



가정은 사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이며 사람의 일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람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 성장을 이루며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공유한다. 가정환경의 문제로 한 개인의 인생 행보가 크게 바뀌는 경우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관찰할 수 있다.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성경은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및 자녀 양육 등 다양한 가정의 이슈들을 구체적으로 다루며 그에 맞는 규율과 권면을 주고 있다. 또한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도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을 중요한 지도자의 자질로 제시하고 있다 (딤후 3장).

우리가 북한 선교를 생각할 때 흔히 한 사람의 개인을 대하는 관점에서 선교를 생각하기 쉽다. 그렇지만 개인의 가정 환경과 경험을 이해하는 것은 선교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교회의 주요 사역 중 하나가 바로 가정 사역인 만큼 장기적으로 통일을 고려할 때 북

한의 가정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북한의 가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사역에의 시사점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시대 변화에 따른 북한의 가정 변화

북한의 가정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책과 시대적 조류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공산 정권 수립은 가정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대대로 내려온 가부장적인 문화에 익숙했던 북한 사회에 가족제도를 포함하여 기존 시스템의 변혁을 주장하는 사회주의 사상은 파격적이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북한 당국은 노동력 부족에 따라 여성을 사회적 노동에 참여시키기 위한 개혁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혼인/가족 제도의 변화와 여성 기초교육 확대, 여성 정치참여 확대 등 제도 변화가 있었으며 여성의 노동계급화 및 사회적 노동 동원과 육



〈북한 회령시 주택가 풍경〉

아의 사회화가 추진되었다.¹ 여성이 노동에 참여하게 될 때 온갖 구속에서 해방하고 실질적으로 평등한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언급한 김일성의 교시²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사회주의 정책은 어떤 면에서는 여성에게 불합리했던 제도를 개선하고 여성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북한은 체제 안정화 속에서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를 오히려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 먼저 북한의 통제 시스템은 남자 가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직장 배치, 물자 배급, 거주지 배치 등이 남성 가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자유로운 지역 간 여행 및 이동이 제한되면서 가족의 범위가 협소해지고 핵가족화가 강화되었다.

특히 70년대 이후 후계체제의 확립 및 지도자 우상화 과정은 북한의 가정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김일성의 후계구도 확정 과정에서 김정일은 주체사상의 수령중심주의를 강화하고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사회주의 대가족론 등을 내세웠다. 즉 국가 운영의 기본 사상으로 지도자를 민족의 아버지로 받드는 ‘가족’ 개념을 들고 나온 것이다. 지도자를 아버지로 받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권위가 정책적으로 강조되었고, 그로 인해 북한 사회 전반의 가부장 문화는 더욱 강화되었다.³

이 과정에서 남녀 성 역할의 구분도 강하게 나타났다. 김씨 일가에 대한 우상화와 사상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 역할 강화에 정책이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김일성의 가계를 우상화 하는 과정에서 김정일의 할머니 강반석과 어머니 김정숙에 대한 우상화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며, 모든 여성들이 본받아야

할 표상으로 교육되었다. 하지만 이 여성들에 대한 우상화는 주체적인 혁명가로서, 그리고 과거 구습을 타파하는 진취적인 여성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혁명가의 아내 또는 위대한 수령의 아내로서의 충성심과 순종, 그리고 아들 김일성과 김정일을 키워낸 훌륭한 어머니이자 교육자로서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이는 전통적인 현모양처상에 가까운 것으로서 가부장 문화 하의 남녀 성 역할을 강화시키는 정책적 경향을 보여준다.⁴

주체사상의 확립과 정책적 강조 속에 강화된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정상은 경제난과 시장의 대두로 금이 가기 시작했다. 생계를 정부에 의존했던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배급이 끊기는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정부가 아닌 시장에 생계를 의존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각 가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먼저는 경제난으로 인해 많은 가정이 깨어짐의 아픔을 겪었다. 또 많은 여성들이 인신매매 등의 피해자가 되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남성들은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다. 북한의 직장은 단순 경제활동을 위한 것을 넘어서 국가의 주요 통제 수단이기 때문이다. 경제난에도 남자들은 배급 없고 돈 안되는 직장을 떠날 수 없었고,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가정의 생계를 감당하게 되었다. 이는

가정 내 남성의 위치는 약화시키고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의 지위는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혼인과 가족에 대한 기존 가치관을 바꾸고 있다. 남편까지 먹여살리는 것이 싫다는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가정해체도 늘어났고 사실상의 이혼도 급증했다. 법적인 이혼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서 이혼을 자체는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가정을 버리고 떠나는 등 사실상 이혼상태인 여성들이 늘었다. 성 윤리와 도덕관념도 흔들리고 있다. 가정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경제 논리가 우선시 되는 경향의 확산은 단순히 경제 상황 변화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상적으로 왜곡된 가정상에 대한 반작용으로 가정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최근 시장 경제의 발달로 여성의 경제력과 발언권은 향상되기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가정은 여전히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문화가 지배적이라는 것이 탈북민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문화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급격하게 바뀌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가와 가족을 일체화시키고 그 속에 가부장적인 요소를 차용하여 지도자를 우상화해온 북한 체제의 영향이 크다. 가부장적 권위의 약화는 지도자 우상화의 약화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는 움직임이 강

1 윤미량, “북한 여성의 위상과 역할,” 『북한의 여성과 가족』, (서울: 경인문화사, 2006), 66-81.

2 김일성, “지도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며 인민경제의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1964.12.19.),” 김일성 저작집 18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518.

3 김혜영, (2017). “북한 가족의 특징과 변화의 불균등성: ‘고난의 행군기’ 이후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9(1), 67-104.

4 북한연구학회, 『북한의 여성과 가족』, 84-88.



〈북한의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개시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8주기 추모 홈페이지 대표이미지. 김정일을 민족의 아버지로 선전하고 있다.〉

한 것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사회주의 대가정론에서 가정혁명화는 선군가정화로 변경, 주창되고 있다. 이는 남성을 ‘국가를 보위하는 주체’로, 여성은 의식주를 중심으로 사회공동체의 ‘일상생활을 책임지는 주체’로 규정하고 여성이 군대를 원호하고 군인으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역할수행의 주체를 강조하는 것이다. 즉 북한의 공식담론은 여전히 선군의 의무를 다하면서 가족 경제를 운용해야 하며, 그 부담은 가족과 그러한 가족을 책임진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⁵

이는 기존의 성역할구도를 강화하는 모습이며 여성의 역할 변화가 당연한 여성의 의무로 주입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탈북민 가정을 통한 북한의 가정문제 엿보기

앞서 살펴본 북한의 가족 문화 경향이 실제 가정 내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

날까?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온전하게 확인하긴 어렵지만 국내 탈북민 가정을 통해 북한의 가정상을 직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탈북민 가정은 탈북민만의 이슈들, 예를 들어 탈북 과정에서의 트라우마나 가족의 헤어짐과 재결합 등과 이로 인한 영향이 있지만 이번 글에서는 북한의 일반적인 가정상을 반영하는 특징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탈북민들을 지원하는 실무자 7명을 대상으로 한 탈북민 가정에 대한 연구⁶에 따르면 가정 내 가부장적 권위주의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부부관계에서는 북한출신 남성은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반면, 북한출신 여성들은 양성평등을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남편이 자신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양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부부가 양성평등이라는 의미 자체를 정확히 모르고 있어 부부간 차이로 인한 갈등이 표출되었다.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도 이러한 갈등의 해결을 어렵게 만들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가족 문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탈북민 부모들은 자녀 양육을 가장 어려운 과제로 꼽았는데,

6 조은숙, 김소영, 김민경. (2020). “현장전문가가 지각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 특성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4(4), 175-198.

그 내용을 보면 정착과정에서 생계를 위해 자녀가 방치되거나 교육 관련 정보의 부족도 어려움이 되었지만 부모들의 권위적인 양육태도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북한에서 엄하고 센 자녀교육 방식이 체화된 것의 영향으로 양육태도가 과도하게 권위적이거나 자녀에게 지나칠 정도의 교육적 압력을 가하는 등의 이슈가 발생하는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부부간의 갈등 또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 발생 시 이에 대한 건 강한 대처가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역기능적인 형태, 즉 부부 관계에서는 회피, 이혼, 폭력과 중독, 자녀 관계에서는 불통, 자녀의 가출, 소극적 대처 등의 모습이 자주 나타난다는 것이다. 대처가 이렇게 역기능적 형태로 나타나는 이유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가장 주된 이유로 꼽혔다. 의사소통의 장애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북한의 억압적 사회분위기의 잔재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탈북민 가정 내 이슈들은 우리가 북한의 가정을 대할 때 북한의 가부장적 문화, 권위적 문화의 한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가정 내 의사소통에서의 장애를 어떻게 극복할지, 억압적 사회 분위기에서 적절한 대화법이 부재한 가정들에 대한 우려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그 외에도 통일이 된다면 맞이할 급격한 사회 변화가 가정에 미칠 충격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가정과 선교

앞서 살펴본 내용을 통해 살펴본 북한의 가족에 대한 이슈들을 정리해보면 특수한 체제 속에서 강화된 가부장적 권위주의, 그리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한 이혼 증가와 결혼 회피, 성윤리 약화 및 가족제도에 대한 회의 등의 모습을 꼽을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이슈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느 지역 어느 가정에나 있을 수 있는 문제이다. 남한 교회 역시 이러한 가정의 역기능적인 문화와 잘못된 양육 태도로 인한 문제를 계속해서 마주하고 있고 이에 대해 고민하며 목양의 과정에서 성도들이 성경적인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북한의 경우는 권위주의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폭압적인 통제가 강력하게 작용하는 현 북한 체제의 영향이 크다는 점이, 그리고 동시에 가정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경제 논리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 우려했다.

가족 내 올바른 질서와 권위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다만 왜곡된 권위주의는 많은 문제를 일으키며 선교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해와 인격적 관계를 왜곡시킬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왜곡된 관계경험은 자녀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부정적 요소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 중고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청

5 김혜영. 앞의 책. 97.



소년의 부성부재와 하나님 이미지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⁷에서도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단절 및 부정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맥락에서 선교적, 사역적 과제를 꼽아 보자면 먼저는 북한의 억압적 체제로 인해 왜곡된 권위주의와 가족상을 극복하고 둘째로는 가족 공동체의 바른 가치를 깨달도록 도와 개인이 하나님과 가족과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문화와 체제의 한계로 인해 형성된 잘못된 가치관과 왜곡된 가정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기독교 탈북민들의 경험을 살펴보면 처음 복음을 전달하는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탈북하여 남한에 온 지 5년 이상 되었으며, 교회에 3년 이상 출석한 13명을 대상으로 신앙여정을 조사한

연구⁸에 따르면 이들의 하나님 이해와 신앙 성숙은 그들이 거하고 훈련받은 신앙공동체의 성향과 그 안에서의 경험이 큰 영향을 주었다. 탈북자들 대부분이 기독교와 첫 접촉 후 바로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의심의 과정과 도움을 받기 위해 참여하는 비자발적 훈련의 과정, 혹은 허무맹랑한 것에 대한 거부감이 지나가고 난 후에야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할 수 없이 맞닥뜨리는 경험 등을 통해 복음을 받아드리는 것이 보통이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신앙공동체에서 본 신앙의 습관과 방식들, 그리고 그 안에서 경험한 신앙적 체험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라는 ‘사립’의 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해당 연구에서는 북한체제의 영향, 속하였던 공동체와 사역자들의 신앙 색채, 개인 내면의 무의식적 역동 등에 의해 하나님에 대한 다소

왜곡된 해석이 일어난다고 분석했다. 순종하지 않아서 병이 났다거나,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는 해석 등은 북한체제가 지닌 속성과 트라우마 반응의 특징인 두려움과 공포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⁹

즉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이 하나님과 공동체의 의미를 바르고 건강하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처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부정적 경험과 가족상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때 신앙을 통해 가족의 가치를 깨닫고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실제 북한선교 현장에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 가정이 존중받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를 목도하고 있다. 일례로 제 3국에서 탈북 여성을 돌본 사역자들은 말씀을 받아드리고 믿음을 가진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더 나아가 가족 복음화를 위해 애쓰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고백한다. 제 3국 탈북 여성의 경우 인신매매 등으로 강제로 맺어진 가정이고 당사자들 간의 사랑보다는 가족의 대를 이을 목적으로 그곳에 팔려온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온전한 가정이라 보기 어렵다. 게다가 가정 폭력 등으로 인해 고통 받는 등 도피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진 탈북 여성들을 통해

가족 간 관계가 회복되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전도해서 복음화하는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나고 있다. 한국행을 하는 경우에도 경험적으로 볼 때 믿음의 자매들은 남편도 함께 데리고 나오거나 제 3국 가족과 연락을 유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우리 자매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함을 배우며, 가족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본인이 양육한 자매들의 특징을 꼽아준 한 현장 여성 사역자의 고백은 인상 깊게 다가온다. 물론 북한 여성들이 처한 상황이 각각 다르고 이러한 회복의 기대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반화 할 수는 없지만, 보통의 가족이라고 지칭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관계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복음의 능력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례와 선교경험은 우리에게 향후 북한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로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며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에 대해, 또 가족에 대한 건강한 이미지를 우리의 삶과 메시지를 통해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할 뿐 아니라 그 내용을 삶으로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교사들과 동포 교회의 대가없는 사랑의 실천 속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많은 탈북자들의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반면 공포심과 벌을 통해 억지로 하나님을

7 전요섭. (2010). “청소년이 인식한 부성부재와 성역할 정체성 및 하나님 이미지의 구조적 관계 -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1(3), 1237-1253.

8 전명희 외. (2019). “탈북 기독교인들의 신앙 여정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30(4), 173-207.

9 위의 책, 193.

북한의 여성과 가정

오픈도어 현장사역자

북한의 여성정책 변화

북한은 정권 수립 초기부터 여성문제에 높은 관심을 기울였다. 정권의 수립과 함께, 반제반봉건주의의 일환으로 토지개혁과 토지국유화를 시행하였는데, 북한정권은 토지개혁의 과정에서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하게 토지를 분배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했다. 또한 “남녀평등법”을 통해 여성의 법적인 권리를 명시하고 “노동법”을 통해 여성의 사회적 노동의무화와 그에 대한 대가제공을 명문화 하는 등 여성관련 법률의 정비에도 많은 공을 들였다. 동시에 조선민주여성동맹을 결성하여 여성의 조직화를 꾀하였는데, 이는 지금까지도 북한의 여성사회의 핵심조직으로 기능하고 있다.

북한의 1970년대와 80년대는 김일성-김정일 체제 확립과 기획경제의 쇄퇴 등 북한사회의 주요한 변화가 있었던 시기이다. 권력의 세습화 및 정당화 과정에서 김정일의 어머니인 김정숙을 강조하여 1976년 김정숙을 ‘혁명의

어머니’로 칭하기 시작했으며, 김정일로의 권력세습이 공식화된 1980년 이후 김정숙에 대해서도 우상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김정숙 개인에 대한 찬양은 주로 김일성에 대한 충실성과 혁명투사의 풍모, 여성해방운동의 지도자이자 인민들을 항상 돌보는 인간적인 면을 강조하였다. 즉, 당시 북한 여성은 가정과 사회, 국가에 대하여 여성이 지녀야 할 덕목을 김정숙을 모델로 학습하여 북한이 지향하는 여성형을 창출하는 한편, 김정일 가족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도록 교육받았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북한은 여성에 대한 사회주의적 권리 보장보다는 여성이 해야 할 의무만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국가 스스로 여성에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사라진 상황에서, 여성은 국가에 대한 충성만을 강요하게 된다. 한편 고난의 행군 시기 남성들은 배급이 지급되지 않아도 자신의 일터를 지켜야 하는 기존 체제로부터 이탈 할 수 없었으므로 여성들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섬기도록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또한 공동체 내 리더십을 발휘함에 있어서도 북한의 권위주의적 아버지상 또는 강압적 체제에서의 경험은 투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권위와 폭력이 아닌 용서와 용납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뿐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의 회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북한의 사상이나 체제의 요소를 활용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북한의 주체사상이나 체제의 시스템은 기독교나 교회 시스템을 많이 차용하였기 때문에 북한의 그것에서 수령을 하나님으로 치환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교회가 기독교를 이해시킬 수 있는 면은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접근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고 과거 북한 체제에 대한 배신감이 있는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마무리하며

관련 주제를 조사하면서 북한의 우상숭배적이고 억압적인 체제의 부정적 영향력을 다시금

실감하게 된다. 권력을 위해 하나님을 대적이고 사람을 억압하는 이 체제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가족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엡 6:12)임을 다시금 되새기게 한다. 문화와 사상, 체제가 하나님과의 만남과 인격적 교제를 방해하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기 어렵게 만들지만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고후 5:18)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섬겨야 할 것이다. 특히 남한 사회도 계속해서 가정의 의미가 약화되고 많은 가정이 깨어지며 성도들의 가정들 중 많은 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성경적인 건강한 가정의 본을 보이고, 더 나아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에 응답하여 민족 복음화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길 기대하며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준비되고 쓰임받길 기도한다. 

북한 내 여성의 역할 변화

경제난 이전의 시기 북한가족체계의 골간을 이루었던 배급제가 붕괴된 후 시장의 확대를 거치며 북한에서는 남성=공식노동, 여성=비공식노동이라는 성별분업체계가 젠더체계로 등장하였다. 경제적 이윤 창출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은 남성이 담당하는 공식 노동 영역에 주어진다. 과거 배급은 개별 가정에서 남성의 지배와 통제를 정당화하는 물적 토대가 되었다. 세대주의 의미는 세대를 대표하여 배급을 받음으로써 온 가족의 생존을 책임진다는 것이다. 배급제는 사회주의 대가족의 아버지인 수령이 인민을 먹여 살린다는 의미와 남성이 여성을 부양한다는 이중적의미를 갖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의 경제난과 뒤이은 시장화로 배급제는 군이나 일부 관료, 일부 연합기업소 등에서 부분적으로만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있었던 2000년대 초, 새 경제관리조치(2002. 7. 1조치, 2003. 3. 종합시장의 공식화)에 따른 비공식시장의 공식시장화는 북한여성들에게 있어서도 기회의 순간이었다.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여성들은 공식직장에서 이탈하여 시장을 비롯한 비공식부문에서의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해나갔다. 여성들의 경제 활성화와 함께 남성노동력의 이탈을 통제하는 국가 정책의 결과 ‘남성노동=공식부문노동, 여성노동=비공식부문노동’이라는 성적 특성을 띠는 노동 분업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이로 인해 북한 여성의

역할강조는 양성평등에 기여하기보다는 사회적 삼중고를 부담해야 하는 3대 구조에 놓이게 된다. 즉 ①노동력의 재생산부담(육아 및 가사노동) ②가정의 생계부담(경제활동) ③사회적 부담(노력동원, 사회적 동원, 조직생활)의 역할이 여성에게 부과된다는 것인데, 이는 생계·가사·부역의 삼중고가 여성의 두 어깨에 실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중국과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탈북경험과 여러 경로를 통한 외부문화 접촉 또한 북한의 여성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탈북 후 중국에서 정착하여 오랜 시간을 보낸 이들은 대부분 여성이다. 중국에서 생활하던 중 자발적으로 북한으로 돌아간 여성도 있고 공안에 발각되어 북송된 여성도 매우 많다. 가령 2000년대 초중반 중국에는 수많은 탈북여성들이 있었다. 연구기관들의 발표에 따르면 이들을 10만 명 내외로 추산하였지만 이는 대부분 보수적인 통계이고, 현장의 사역자들과 탈북자 문제에 관련한 조선족들 사이에서는 당시 탈북자가 최소 20만 이상 될 것으로 추산하였다. 필자가 관여하던 사역지를 볼 때 당시 중국에 있던 자매들 중의 비율을 따져보면 북송 : 한국행 = 5 : 1의 비율을 보인다. 탈북자의 국내진출이 활발히 일어난 2002-2019년의 18년간 국내 입국 탈북여성의 수가 2만3천 명에 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최소 십만 명의 여성들이 중국을 경험하고 북한으로 돌아갔을 것으로 보이며 이들은 외부사회를 경험한 이들로써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북한에서

의 삶을 이어가고 있을 것이다.

한편, 여성의 경제력에 기반한 자기표현의 욕구가 표출되면서 옷차림, 머리단장, 화장 등 여성의 몸과 용모에 대한 통제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정책은 다시 여성들의 자기표현 욕구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특히 공식매체에서 보도된 리설주나 예술단원들의 옷차림은 개성의 표현으로서의 자신의 몸과 용모에 대한 젊은 여성들의 관심을 증폭시켰다. 또한 여성의 높아진 자립능력은 가정 내 성 역할 뿐만 아니라 부부간 성관계의 양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발표된 박연실의 논문 “섹슈얼리티와 북한여성의 주체적 삶의 변모양상”은 북한 부부의 성문화 변화를 드러낸다. 논문이 다루는 수많은 사례들에 따르면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여성이 가족의 생계부양자 역할을 떠맡게 되자, 무능하고 가부장적인 남편에 대해서는 자연스레 불만을 표출하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남편의 성관계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순응했던 과거와 달리 차츰 이를 거부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북한 여성들의 사례들 그리고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혼외 성관계와 동거의 인식변화들을 분석한다. 위에서 언급한 일련의 변화는 자연스레 북한사회에서 남성 중심적 성문화의 탈피로 이어지고 있다.

여성의 역할 변화와 가정

사회와 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고 북한정권이 제시하는 여성상에는 변함이 없다. 북한정권은 사회를 지탱하는 노동자로서의 의무와 자녀를 양육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구성원을 훌륭히 교양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일관되게 강조한다. 정권차원에서 언급된 여성과 관련된 주요한 담화는 2016년 김정은이 여맹대회에 보낸 서한과 최휘의 2018년 국제 부녀절 중앙보고 그리고 2021년 6월 21-22일에 이루어진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 7차대회에 김정은이 보낸 서한이 있다. 위의 서한과 보고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여성의 재생산이 민족과 국가의 미래임을 강조한 것이다. 자녀 보육과 교육에 있어 어머니의 역할 강조는 오히려 과거 젖을 떼기도 전부터 아이를 탁아소에 맡기던 어린이 보육과 교육에 있어 정권의 역할 강조와 대비되는 모습을 보인다. 예외적으로 지난달 6월 23일에 전해진 김정은의 서한에는 “아들딸 많이낳기”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도 “노동 적령기의 여맹원들을 사회에 적극 진출시키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며 여성의 사회진출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정권차원의 변함없는 “모성실천” 여성상 제시에도 불구하고 사회와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고 이는 북한의 각 가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고난의 행군 이후 가장 두드러진 북한 가정의 변화는 혼전동거의 증가이다. 결혼을 미루고 혼전동거를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보다 혼인으로 인해 국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식량난 이후 배급제

도가 유명무실해짐으로 인해 혼인등록에 따르는 남성가부장의 가족부양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배급제도의 약화와 여성의 시장진출은 혼인제도의 쇠퇴로 이어진다. 결혼등록을 해도 배급을 받지 못하므로 대다수의 중하층 계급에서는 부모들의 승인 하에 혼전 동거를 하면서 결혼등록을 미루는 현상이 일반화 되고 있는 것이다. 결혼등록과 출생등록의 관계가 사라지면서 사회적 통제기능 또한 부분적으로 상실되었다. 결혼등록을 미루는 또 다른 이유는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가족 구성원이 사망 혹은 행방불명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였고 사회적 불안정 속에서 가족 내 갈등이 심화되면서 가족을 유지하는 것이 예측 가능하지 않게 된 반면, 이혼의 절차는 여전히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여성이 이혼을 원할 경우 여성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 쉽지 않고, 절차도 복잡하다. 그런데 결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동거생활을 통해 배우자와 같이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면 별도의 절차 없이 헤어질 수 있다. 이같이 결혼을 하더라도 결혼등록을 미루는 최근의 문화는 가족제도의 경직성을 우회하며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북한 여성들의 전략적 성역할 수행의 단면을 보여준다. 즉 경제난 이후 가족해체가 확대되자 당에서는 재생산과 양육을 담당할 가족유지를 위해 이혼을 금지하는 방침들을 내려 보내고, 이와 같은 방침을 회피하기 위해 여성들은 결혼 등록 자체를 연기하는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출산장려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여성들을 향한 김정은의 담화와 서한에는 빠짐없이 “아이 많이 낳기”에 대한 독려가 있으며, 아이를 많이 낳은 여인에게는 정권차원에서 노력영웅 칭호를 수여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유엔인구기금(UNFPA)이 2021년 4월 14일 발표한 2021 세계 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합계 출산율은 1.9명 이었다. 이는 세계 평균인 2.4명,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 2.1명, 인구 유지에 필요한 수치 2.1명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대상 198개 국가 가운데 119위를 기록했다. 인구성장율 또한 2015-2020년 사이에 연평균 0.5%로 세계 평균인 1.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출산율 저하의 주된 이유는 아이를 많이 낳아 고생하기보다는 한두 명의 아이를 낳아 이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러한 인식을 가능하게 한 것은 북한 경제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역할 변화로부터 시작되었다.

북한여성의 내일

북한 여성들은 가정의 꽃, 사회의 꽃, 나라의 꽃으로 불리며 그들의 성역할은 차별이 아닌 규범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북한 여성들은 2000년대에 들어 경제활동을 통해 전통적인 가부장 질서에서 조금은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 양상이 공간경험을 통해 확장성을 가지게 되었다. 수많은 여성들이(북한에 비해) 선진중국의

삶을 경험하고 돌아와 북한에서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과거 강반석과 김정숙이라는 전통적인 여성상을 여성의 규범으로 제시해온 것에 반해 현재의 리설주와 김여정이라는 현대적 여성상이 등장하였다. 현대적 이미지의 북한 여성들을 500개에 이르는 장마당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행위자이며 여성문화를 이끌고 있는 주체다.

선교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북한의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의 경제 구조 변화와 맞물려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남성들에 비해 더욱 활발해지면서 중요한 경제행위자로 부상하고 있다. 여성의 위상 변화는 북한 선교에 있어서도 여성의 역할 증대로 연결된다. 경제활동의 주역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은 인적/물적 교류가 대내외적으로 모두 제한적인 북한의 국가 시스템에서 주요 경제주체일 뿐 아니라 중요한 연결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또한 탈북 여성들을 생각할 때 제대로 채류가 어려운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은 인신매매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나마 해외 곳곳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외부세계와 북한의 가족들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필자는 실제로 중국에서 복음을 받아드린 탈북 여성들이 고향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선교사/현지 교회와 가족을 연결하여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례를 몇 차례 확인했다. 북한 선교에 있어서도 여성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특별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의 개발 및 발전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강한 여성상, 가정상, 성 윤리 등을 잘 전달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의 고민이 필요하다. 북한의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사상과 시스템, 그리고 그와 반대 되는 결혼과 가족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은 모두 건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경제난으로 인해 약화된 성 윤리는 우려스럽다. 탈북 여성 사역 간에도 복음을 받아드리고 신앙을 가지게 되었지만 동시에 돈 벌이를 위해 유흥산업에 종사하는 가운데 고민하는 여성들을 만날 수 있었다. 북한의 가족을 도와야 한다는 압박이 가장 돈을 벌기 쉬운 유흥산업으로 이끄는 면이 크지만 여성의 삶과 신앙을 생각할 때 그 부정적 영향은 분명하다. 결국 우리는 복음으로 여성들을 이끌어야 하기에 경제적 어려움과 믿기 전의 잘못된 세상 습관으로 인한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어떻게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지에 대한 실제적인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 더 많은 교회와 사역자들이 이러한 이슈들을 이해하고 북한 선교와 민족복음화에 힘쓸 수 있길 바라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여성들의 역할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이화여대 북한연구회, 『북한여성, 변화를 이끈다』, 서울: 선인, 2021
 김원홍, 『북한여성의 일상생활』, 서울: 통일교육원, 2011
 조정아 외, 『북한여성의 일상생활과 젠더정치』, 서울: 통일연구원, 2019
 조영주 외, 『북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사업 추진 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
 『한국일보』, 『VOA』, 『뉴스핌』

북한의 가정

정은 찬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1. 북한에서 가정의 의미

2015년 북한 평양출판사에서 출간한 책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가족생활풍습』(리제오 저)의 서두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있다. “예로부터 하나의 강토에서 한피줄을 이어오며 대대손손 살아온 조선민족은 정의롭고 근면하며 슬기롭고 아름다운 민족성을 지닌 것으로 하여 동방의 자랑으로 그 명성을 떨쳐왔다. 지구상에 흔치 않은 단일민족으로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은 가족이라는 혈연적집단의 고유한 력사와 전통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조선민족특유의 가족생활풍습은 우리 민족이야말로 일찍부터 우수한 가족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켜온 문명한 민족이라는것을 뚜렷이 증시해주고 있다.” 6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의 제2장 ‘혈연의 정과 사랑에 기초한 가족관계’에서는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인 남편과 아내(북한식 명칭은 ‘안해’)의 관계를 “진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의 부부관계”로 묘사하며 “믿음과 사랑은 전통적인 부부관념”이라고 설명한다. “부부는 일심동체”, “부부싸움은 사랑싸

움”,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부부오누이” 등과 같은 속담을 소개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속담을 북한에서도 그대로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정말 우리는 한민족이구나 하는 동질감을 느끼게 한다.

필자는 이 책을 읽으며 1,300여 년간 단일민족으로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며 통일국가를 이루고 살았던 우리 민족의 과거 역사를 되새겨 보았고, 지금은 남과 북이 분단 70여 년 장기화 속에서 분단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통일한국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그날을 그려보았다. 이처럼 북한이 책을 통해 소개하는 전통적인 가족 생활풍습은 우리는 한민족임을 각인시킨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북한에서 가정의 의미는 혈연에만 기초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북한에서의 가정은 혈연적 가정과 사회주의 대가정 모두를 포함한다. 사회주의 대가정은 북한 사회를 하나의 큰 가정으로 보고 그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 중 최고지도자는 아버지로, 당은 어머니로, 대중은 자녀로 연결하여 지칭한 개념이다.

북한은 1990년 10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호에 의해 채택한 가족법 제1장 제1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은 사회주의적결혼, 가족제도를 공고발전시켜 온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대가정으로 되게 하는데 이바지한다.”라고 명시하여 혈연적 가정을 초월한 사회주의 대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사회주의 대가정 결속을 위해 북한은 혈연적 가정을 ‘사회의 기초생활단위’로 규정하고(가족법 제1장 제3조) 개별적 가정들이 사회주의 대가정을 이루는 하나의 세포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체제의 의도는 1990년대 중반 경제난으로 국가공급제도(식량배급제)가 붕괴된 이후 현실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먹고 입고 쓰고 사는 경제적 자립이 북한의 가정에서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지도자 중심의 결속보다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이 최우선 목표가 된 현실에서 개인·가족·돈 중심의 가치관이 사회주의 대가정 중심의 가치관보다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일명 ‘고난의 행군’ 시기로 지칭되었던 경제난 시기 자립적으로 생존해야 했던 북한의 가정들은 경제생활의 어려움으로 가정이 붕괴되거나, 결혼 및 출산을 기피하는 등의 가정 약화 현상을 동반하였다. 한편에서는, 가계경제 주역으로 거듭난 북한 여성이 가정에서 세대주인

남편보다 그 지위가 급부상하여 가부장적 문화에서 스스로 벗어나 당당함을 찾아가는 모습들도 엿볼 수 있게 하였다.

2. 북한의 가족제도와 가정

북한의 가족제도는 사회주의 가족원리와 유교적 가부장제가 공존 혹은 분리되는 과정을 거치며 변천되어왔다. 그 과정은 1단계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가족제도의 변형기(1946~1958), 2단계 유일사상체계 확립에 의한 가부장제의 부활기(1960~1980), 3단계 경제난으로 인한 가족제도의 변화기(1990년대 중반 이후~)로 분류된다.

1단계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가족제도의 변형기(1946~1985)에 북한의 가정은 가부장적인 위계질서- 대가족제도가 붕괴되는 변화를 맞았다. 호적제도가 폐지되고(1946) ‘공민증’ 제도가 신설(1946.9.1.)되어 가정에서의 봉건적인 가부장제



〈북한 가정집을 소개하는 노동신문 사진. 벽에 “장군님 식술”이라는 문구는 사회주의 대가정론의 단면을 보여준다〉

가 청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혼인과 이혼에 대한 자유가 법적으로 규정되었다. 또한 사회주의 혁명기에 추진했던 농업협동화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에 힘입어 북한의 가족 중심의 경제 활동은 사회적 경제활동으로 전환되었고 가족을 중심으로 구축되었던 경제적 기반은 무너졌다. 따라서 북한의 가정은 사회적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살아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로 거듭났다.

북한 가족제도의 변천 2단계인 유일사상체계 확립기(1960~1980)에 북한의 가정은 가부장제의 부활과 함께 1인 지도자 중심의 '사회주의 대 가정'으로 거듭나는 변화를 거쳤다. 1960년대에 전통적 가정이 갖고 있는 낡은 사상과 생활양식을 제거하려는 취지에서 '가정혁명화'가 추진되었고, 1970년대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어 결혼연령 및 산아 제한정책이 시행되었다. 1980년대에는 '사회주의대가정론'이 등장하여 지도자를 아버지로 한 유기체적 일체론 중심의 대가정관이 부각되었다.

북한 가족제도의 변천 3단계인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시기 북한의 가정은 남성의 경제적 역할이 약화되고 여성이 가계경제의 주역으로 거듭나 그 지위가 격상되는 등의 변화를 맞았다. 일명 '고난의 행군' 시기로 일컫는 경제난 시기 북한의 가정은 여성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긍정적 변화와 가정이 파괴되고 결혼 및 출산을 기피하는 등의 사회적 현상이 증가하는 부정적 변화를 동시에 경험하였다.

3. '고난의 행군'과 북한의 가정

'고난의 행군'은 북한이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시기 주민들을 체제 중심으로 결속시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시한 위기극복 정신이다.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용어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업적을 강조하기 위한 일환에서 사상교육을 통해 주입된다.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시기 '고난의 행군'은 1938년 12월부터 1939년 3월까지 100여 일간 일제의 포위망을 뚫고 고난을 이겨낸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에 기원을 두고 있다.

김정은 집권 10년을 맞은 올해 북한은 당세포비서 대회(2021.4.8.)에서 '고난의 행군'을 선언하며 코로나, 대북제재 등의 위기를 자체의 힘으로 극복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이처럼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은 김일성 시대로부터 김정은 시대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을 지도자 중심, 체제 중심으로 결속하기 위한 위기극복 대안임을 알 수 있다.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은 배급제가 중단된 상황에서 아사자가 발생하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던 시기에 북한이 일시적 위기임을 선언하며 주민들을 체제중심으로 결속하기 위해 전면내세웠던 정신이다. 이 시기에 가정경제로 회귀한 북한 여성들이 시장 운영이 공식화된 2003년 이후 세대주인 가장의 역할을 대신하여 가계경제 자립 생존 주역으로 거듭남으로써 북한의 가정은 가정에서의 여성의 지위가 급부상하고 여성

스스로 가부장적 생활문화에서 과감히 이탈하여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변화를 맞았다.

북한에서의 가정은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동시에 최저생산 단위이다. 특히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실현의 학습장이기도 하다. 북한은 가정을 사회주의 대가정을 이루는 하나의 세포로 규정하고 하나하나의 가정들이 최고지도자 중심의 일심

단결에 자발적으로 적극 동조할 것을 요구한다. 북한의 가정에서 여성들은 '역사의 한쪽 수레바퀴를 담당할 사회발전의 주역'으로 지도자에 대한 충실성, 생산자로서의 혁명성·노동계급성을 발휘하는 한편, 남편을 잘 섬기고 자애로운 어머니로서 자녀를 양육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이러한 사회적, 가정적 의무를 지녔던 북한 여성의 역할은 식량공급이 중단되었던 '고난의 행군' 시기 남편의 세대주 역할을 대신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시장 활동을 통한 부의 축적, 외부사조의 접촉을 통한 외부세계 동경, 스스로의 자아존중감 성취 등의 변화로 이어졌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가부장적 가정의 틀에서 벗어나려는 여성 스스로의 실천이 현실적 성과로 나타나고, 자기계발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역량 제고를 위한 북한 여성의 노력은 축적한 부를 활용하여 공장기업소 경영에 간접적



〈평양의 북한여성들〉

경영자로 참여하는가 하면, 가부장적 생활관습에서 탈피하여 자기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적 지위를 찾기 위해 자기계발에 집중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 여성의 가부장적 삶에서의 해방, 사회적 지위 격상, 자아존중감 향상 등의 긍정적 영향으로 이어지지만, 지나친 개인주의에 기반한 독자적 삶의 중시, 이로 인한 결혼기피, 출산 기피, 배금주의적 사고, 가정윤리의 파괴, 이혼 요구 등의 부정적 영향도 낳고 있다.

90년대 중반 경제난 시기 북한의 가정은 자립 생존의 압박감으로 그 어떤 선택의 여지 없이 단 하나,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이 흩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었다. 그러나 시장이 도입된 이후 가정이 깨지고 가정윤리가 약화되는 부분은 단지 먹는 문제 해결에 귀착되지 않는다. 더 나은 삶을 살려는 욕구가 개인의

북한의 여성정책과 여성

채 경 희 (총신대학교 교수)

들어가며

구소련과 중국을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에서 여성정책은 두 가지의 큰 틀에서 진행되었다. 하나는 가정에서 여성의 존재가 남성에게 예측된 존재, 사유재산과 같이 부속된 존재이기에 자본주의 온상인 사유재산제의 철폐가 곧 여성의 독립을 가져온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경제활동에서 배제되어 있는 여성들을 생산활동에 참여시켜 가정에서 남성과 동등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사유재산이 철폐되고 여성의 ‘노동자화’가 실현되면 여성해방이 도래한다는 이론에 근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북한정권은 해방된 이듬해, 사회주의혁명에 앞서 반제반봉건혁명에 기인한 민주개혁을 수행함에 있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여성에게 부여하는 혁신적인 정책들을 펴왔다. 토지개혁 시에는 남성과 동등하게 땅을 분여했으며 이어 남녀평등권법령에서도 여성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였고 노동법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제를 도입했다.

1950년대는 전쟁과 전후복구건설을 위해 여성 인력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시기였다. 여성의 권리와 지위를 남성과 동등한 반열에 올려준 김일성 정권의 ‘은혜’를 각인시키는 교육을 수반하여 반강제적인 여성의 노동자화를 추진하였다. 프롤레타리아 문화의 도입은 부르주아적인 여성상에 대한 대대적인 비판으로 이어졌고 여성도 남성처럼 어렵고 힘든 노동을 씩씩하게 잘해낼 수 있다고 교육했다. 여성의 노동계급화정책은 지속되어 1980년대 전체노동자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여성들은 가정과 자녀를 돌볼 겨를도 없이 노동현장으로 내몰렸다. 새벽같이 일어나 남편과 자녀의 아침식사를 보장하는가 하면 아이를 등에 들쳐 업고 출근해 공장구내의 탁아소에 맡겨 놓고 작업현장으로 뛰어갔다. 7시 30분, 현장에 도착하여 30분간의 사상교육을 받고난 후 작업준비를 마치고 나면

잘못된 욕망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이어져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이 고통을 겪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이혼은 재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북한의 가족법 제21조에는 “배우자가 부부의 사랑과 믿음을 흠잡하게 배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부부생활을 계속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성병, 부정, 폭행 등을 이유로 들고 있으며 이혼 사유가 합당할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북한에서 이혼은 1956년 3월 합의이혼제도가 폐지된 이후 재판에 의해서만 가능하나, 사회주의 대가정 원칙 하에 되도록 용서하고 함께 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뇌물을 주고 이혼을 강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북한 여성 스스로 가계경제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편의 독선과 가부장적 태도 및 폭행 등에서 해방되기 위해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가부장적 유교문화가 잔존하는 북한에서 가족의 생계, 양육, 가사 등의 다중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북한 여성의 고달픈 삶은 제도적인 보완과 사회적 인식 전환이 동반되지 않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다.

4. 북한 가정의 행복을 위한 기도

북한의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가족생활풍습』(리제오 저, 2015) 책에 서술된 “진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의 부부관계”에는 가족관계의 중심인 부부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조선사람들은 부부는 인간률통리의 기본이라 하면서 집안일이 잘되고 못되는 것이 모두 부부에게 달려있다고 여겨왔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믿어주고 존중해주면 ‘가화만사성’이라 하여 가정의 모든 일이 잘되어 나가는 것으로, 반대로 부부가 서로 반목질시하면 가정이 화목해질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왔다.”

이 글을 보면 우리와 같이 북한도 ‘가화만사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화만사성은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때 가능하다. 북한의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그 가정을 이루는 남편과 아내, 그 자녀 모두 행복해야 한다. 사회주의 대가정 속에서 최고지도자를 아버지로 그 결속을 강요받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도 혈연적 가정의 소중함을 중시한다. 가정에서의 여성의 가중된 부담이 해소되어 결혼 및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감소하고 이혼에 의해 가정이 해체되지 않도록, 북한의 가정이 하나님 뜻 안에서 회복되도록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때이다.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중국 요녕성 대련의 한 공장에서 봉제 작업을 하고 있다. (중앙일보)〉

저녁 퇴근시간까지 8~12시간의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북한정권은 사유재산의 철폐, 여성의 노동자화, 육아의 사회화가 완성되었으니 ‘여성은 해방되었다’고 선언하였다. 구소련과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국가들은 서둘러 여성해방을 선언하였으나 현실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했다. 가정에서 여성의 가사분담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으며 남편의 알콜 중독과 절대적인 궁핍에서 오는 가정폭력은 사회적으로 전혀 드러낼 수 없는 문제였다. ‘여성해방’이라는 미명하에 여성인권과 권리의 문제는 오히려 입 밖에도 올리지 못하는 금기사항이 된 것이다.

1970년대 후계체제구축을 위해 도입한 신유교적인 문화는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의 희생과 헌신은 최고의 미덕이라고 선전했다. 모든 것을 감내해야 하는 여성의 지위는 해방 후의 민주개혁에 비해 후퇴했다. 1980년대 나온 가요 “여성은 꽃이라네”는 북한당국이 요구하는 여성상을 드러내고 있다. 1절과 2절에서는 여성을 가정의

꽃으로 묘사하고 생활의 한 자리를 알뜰살뜰하게 꾸려가며 아들딸을 혁명가로 키워내는 여성을 노래하고 있다. 3절에서는 여성을 나라의 꽃으로 그려냈는데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는 여성이 맡아서 굴려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1. 고난의 행군과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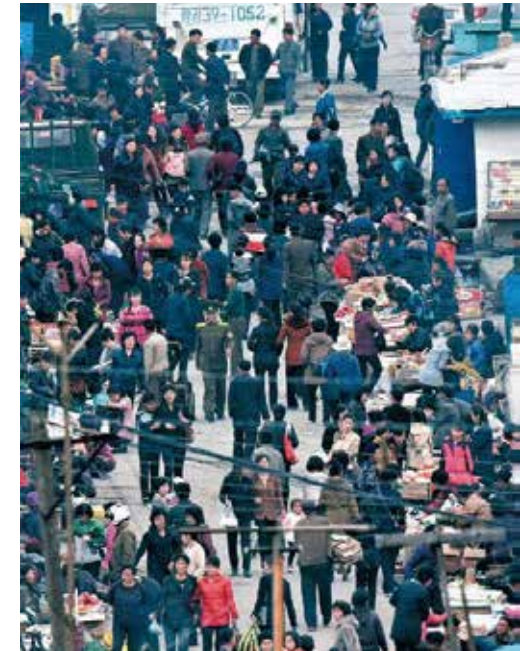
1990년대 중·후반의 ‘고난의 행군’을 통해, 가정과 사회에서 주변부에 머물러있던 여성의 지위가 실질적으로 ‘향상’되는 듯싶었다. 배급과 공급, 공교육과 공중보건의 체계의 붕괴는 여성의 노동계급화를 해체하였다. 배급제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노동현장을 이탈할 수 없었던 남성들을 대신해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실질적인 가장이 되어 여성들 스스로가 장마당을 형성하고 그 주역이 되었다. 입던 옷가지, 쓰던 가재도구, 가전제품, 얼마 되지 않는 쌀이나 밀가루로 만든 가공식품을 팔아 장사밑천을 마련하는 등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해 팔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팔아 식량을 구하는 방식과 조금 남은 이윤으로 약간의 확대 재생산 방식을 터득하기에 이르렀다.

2000년대 들어서 당국은 돈을 벌고자 하는 여성들의 욕구에 밀려 종합시장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였다. 수많은 주민들의 기아와 아사에도 손을 놓고 있던 당국의 방기를 경험한 여성들은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당과 수령보다는 돈을 더 믿을 수밖에 없었다. 여성들은 변화를 주도하

였고 또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다. 고난의 행군시기의 생계형 장사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장사와 소비로 확장되었다. 너도 나도 소매를 하던 행태에서 벗어나 도매와 소매로 분화되고 판매원을 고용하는 돈주 여성들이 늘어났다. 종합시장에서 돈을 많이 번 여성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그들의 장사방식이나 소비방식은 유행이 되었다. 분업확대기 자본의 축적으로 대형 도매에 뛰어든 여성들이 신용거래를 하는 등 선진화된 방식을 스스로 도입하기도 하였다.

시장에 적응한 ‘능력 있는’ 여성과 적응하지 못한 여성 간에 발생한 빈부격차는 지난 시기 남성의 성분에 의해 발생한 계층격차 만큼이나 큰 사회적 인식을 가져왔다. 당국이 부여한 정치적 계층은 본인(남성)의 능력보다는 부모의 대물림으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일반 주민들의 공감을 불러오지 못하였으나 본인(여성)의 능력에 의해 형성된 경제적 계층은 오히려 일반주민들의 공감대를 가져왔다. 가동률이 20~30%에 머물러 있던 산업현장을 지켜야만 했던 남성들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사라졌다. 남성의 사회적 권위와 가정에서의 지위가 실질적으로 낮아진 것이다.

200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 당국은 시장의 지나친 확산을 막기 위해 통제와 이완을 반복하고 있었다. 여성들은 이완되면 활발하게, 통제하면 순응으로 유연하게 대응했다. 여성들은 확산되었던 소비를 줄이고 자신의 선호를 위장하였다. 당국이 주민들의 생존을 책임지지 못하는 무력



〈19년에 촬영된 북한 해산의 장마당 풍경. 고난의 행군으로 생계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북한 여성들은 장마당을 형성하고 그 주역이 되었다. (동아일보)〉

해진 상황에서 장사를 허용하면 주민들 스스로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시장의 순기능을 기대했으나 시장경제의 확산과 외부문화의 유입이라는 예기치 못한 역기능의 결과에 북한당국은 급기야 화폐개혁을 실시했다. 화폐개혁은 고난의 행군시기부터 억척같이 삶을 유지해온 여성들의 의지를 꺾어놓았을 뿐 아니라 모든 여성들을 하향평준화 시켰다. 능력으로 성공한 적지 않은 여성들이 자살하기도 하였다. 화폐개혁을 통해 ‘북한의 본질’을 깨달았고 북한의 화폐를 전혀 신뢰하지 않았다.

여성들은 당국의 요구와는 별개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실천하고 있었다. 공식적인 이혼

이 허용되지 않으면 비공식적으로 별거하였고 비공식적인 재혼도 자유롭게 하였다. '83 부부'는 장사를 하는 과정에 만난 부부라는 뜻이다. '83 제품'이 국영공장에서 공식적으로 생산한 제품이 아닌 가내수공업으로 만들어낸 제품을 의미하는데 이를 빗대어 국가가 허용하지 않은 부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2. 김정은 시대 여성

김정은 집권 첫 해인 2012년 5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11월 16일을 어머니날로 제정했다. 11월 15일에는 제4차 어머니대회가 개최되었다. 어머니대회에 참석한 여성들은 대부분 자녀가 많거나 입양을 한 가정, 그리고 군인 자녀를 둔 가정의 어머니들이었다. 북한당국이 어머니대회와 어머니날에 선전한 기본 내용은 다산이었다. "어머니들은 아들딸들을 더 많이 낳아 훌륭히 키워 충을 잡으면 일당백 용사가 되고 붓을 쥐면 세계적인 인재가 되는 강성조선의 기둥감들이 숲을 이루게 해야 합니다." 고 강조하였다.

김정일 정권 역시 2010년 '여성권리보장법'을 제정해 많은 자녀를 둔 가정에 각종 혜택을 주는 방안까지 제도화했다. 자녀를 많이 낳은 여성을 '모성영웅'으로 치켜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그 실효성이 매우 미미했다. 지난시기 북한이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던 사회시책들이 유명무실해지면서 여성들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고 이는 출산율 저하는 물론 결혼 기피까지 가져

왔기 때문이다. 결혼하는 여성을 예전만큼(고난의 행군 이전시기) 볼 수 없다는 것이 탈북민들의 동일한 증언이다.

전술한바와 같이 여성들은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끌어가는 데서 큰 몫을 감당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어머니날을 제정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크다는 점을 보여주고 여성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야 했을 것이다.

한편 2021년 6월 20일,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여맹) 7차 대회를 개최했다. 6월 22일 노동신문은 김정은 당 총비서가 대회 참가자들에게 '여맹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진발전을 추동하는 힘 있는 부대가 되자'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서한에서 "여성 존중은 공산주의자의 훌륭한 미덕이며 사회 문명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사회적으로 여성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기풍을 세우고 여성을 위한 시책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여성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영예로운 일터에 스스로 달려나가도록 로동 적령기의 여맹원을 사회에 적극 진출시켜야 한다",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우는 여성을 적극 돕고 우대하는 기풍을 확립해 국가적 보장대책도 강화해야 한다", "아들딸을 많이 낳아 키우는 건 나라의 흥망, 민족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대사"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정권이 여성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은 '여성의 노동계급화'와 '다산'이다.

대회에서 토론자들은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

개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비판하였는데 이것은 최근 여성들의 장사행위를 무자비하게 단속하고 처벌하고 있는 당국의 모습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북한의 여맹은 여성들이 대거 노동현장에 투입되던 1980년대 말까지 약화되었다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으로 가두여성(전업주부)들이 많아지면서 확대되었다. 여성이 장사를 하려면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있어야 가능했기 때문이다.


여맹은 당국으로부터 많은 과제를 부여받는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애국사업, 인민군대 원호사업, 영예군인(상이군인)과 후방가족(자녀를 군대에 보낸 가족) 돌봐주는 사업, 자식을 많이 낳고 훌륭히 키워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우고 군인가정의 대열을 늘리는 사업, 농축산과 수산사업에 기여하여 식생활 수준 향상시키는 사업, 중앙과 지방 경공업공장들의 생산정상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누에치기와 목화재배 사업, 가축 기르기와 유희 자재수집사와 같은 좋은 일 하기 등의 과업이다.

그 외에도 인민경제의 기본 동력이 되는 전력 문제 해결과 중요공업부문들을 추켜세우기 위한 적극적인 기여, 축산기지건설, 계단식 발전소건설, 중요건설대상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 강조되는가 하면 당의 수립화, 원립화, 과수원화 구상을 받드는 산림복구 사업도 독려한다. 그야말로 여맹은 '만능조직'으로 나라와 국가 건설의 모든 분야에 기여하고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을 첫째가는 교양자로 지정하고 후대양성 사업에 동원하고 있는 바,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낳아 교양과 교육을 책임지고, 사회적으로는 탁아소와 유치원, 육아원과 같은 어린이 보육 사업에 동원시킨다. 여성들이 요구받는 또 하나의 과업은 예의도덕과 공중도덕을 잘 지키고 옷차림과 몸단장을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에 맞게 건전하고 고상하게 해야 하며 가정과 일터, 거리와 마을, 고향산전을 사회주의적 모습으로 알뜰히 가꾸고 온 사회가 낙천적이고 전투적인 분위기가 되는데 기여를 하는 것이다.

가장 강조되는 과제는 수령을 충성으로 받들어 모시는 역할로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고 물과 불속에도 서슴없이 뛰어들어 '절세위인'들의 태양상과 초상화, 당의 기본구호들을 목숨 바쳐 보위하는 것이다.

나가며

여성 관련 정책들과 과제들을 살펴보아도, 여성의 권리와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없다. 가정과 사회에서 차별받는 여성들에 대한 정책도 부재하다. 여성존중은 말뿐이고 오로지 무거운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여성의 희생만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북한당국은 '제2 고난의 행군'이 올 수도 있다고 고삐를 졸라매라고 주민들을 강요하고 있다. 제2 고난의 행군은 여성들에게 얼마나 가혹한 삶을 요구할 것인가. 

주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
편집부

하나님의 은혜로 팔순이 넘으신 탈북민 권사님을 만날 기회를 얻었다. 연세가 많으셔서 기억이 희미한 부분도 있었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마음속에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동이 차오르는 시간이었다. 굴곡진 역사를 관통한 권사님의 삶을 회고하는 담담한 고백 속에서 느껴지는 세월의 무게, 그리고 그 인생의 무거움을 능히 버티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인상 깊게 다가왔다. 이제는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며 자신의 고백을 나누게 된 것에 대한 권사님의 감사의 고백을 들으며 주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는 감사의 시간이었다. 이 글을 통해 독자에게도 동일한 감동이 전해지길 바란다.

권사님은 전라도에서 태어나셨다. 하지만 어릴 적 기억이 채 생기기 전에 권사님의 가족은 만주로 이주하게 되었다. 필자는 일제 강점기로 어려움을 겪던 우리 선조들 중 상당수가 만주로 이주하였다는 사실은

역사적 사실로 알고 있었지만, 워낙 오래전의 일이라 이렇게 직접 이주를 겪은 분을 만나게 된 것은 뜻밖이었다.

권사님의 어린 시절 기억 속의 아버지는 착하고 성실한 분이였다. 아버지는 종종 강단에 서서 말씀의 선포하셨는데, 그래서 권사님은 처음에는 아버지가 목사님인줄 아셨다고 한다. 아버지는 목사님은 아니셨지만 장로님으로서 이주 전부터 독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였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만주로 이주하는 한인들이 압록강 국경에서 일본군의 검문을 받고 있다.〉

이주 당시 그분들이 겪으셨을 어려움과 역사의 질곡은 이루 다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다. 목단강 인근에 정착한 권사님의 가족은 열심히 그 땅에 적응해갔다. 특히 아버지는 기독교 장로로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물론이고 공동체 내에서도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셨다. 권사님의 기억 속의 아버지는 마을의 농사에 필요한 용수를 관리하고 농지를 경영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다고 한다. 그 당시 농사와 농업용수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공동체 내에서 그분의 위치를 짐작하게 한다.

이야기를 하시던 권사님은 갑자기 책장에 꽂혀있는 사진첩을 꺼내오셨다. 펼쳐진 사진첩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이 있었다. 몇 장 남아있지 않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시절 권사님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오래된 사진이라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사진 속 권사님의 아버지는 단정하게 검은 적삼을 걸치고 서신 위엄이 있으면서도 품위가 느껴지는 모습이었다. 과연 역사책이나 사료들을 통해 본 목사님들, 장로님들의 모습과도 유사한 풍채가 느껴졌다.

안타깝게도 역사의 질곡은 권사님의 아버지와 가족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다. 중공군이 마을에 진주했고, 아버지는 공산당의 박해 속에 고초를 당하시다가 그만 순교하신 것이다. 당시 지식계층, 지주계층, 또 종교 지도자를 향한 반감과 탄압이 심했던 공산당에게 학식 있는 마을의 지도자이며 교회의 장로인 권사님의 아버지가 표적이 된 것이다.

"동네 사람들은 중공군을 상대로 아버지를 변호하고 도와주려고 애쓰기는 했습니다. 마을을 위해 선한 뜻으로 수고했던 아버지셨음을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다들 시골에서 못 배운 사람들이고 언어도 달라 말이 통하지 않으니 누구 하나 제대로 아버지를 변호해주지 못했어요..."

아버지와의 사별은 가정 전반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신앙생활에도 큰 타격이 있었다. 억압적인 상황 속에서 신앙의 맥이 끊기고 만 것이다. 권사님도 그렇게 신앙과는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후에도 역사의 수레바퀴는 쉴 새 없이 돌아갔다. 권사님이 자라서 성인이 되기까지 한반도는 해방과 전쟁을 겪었다. 그리고 권사님이 꽃다운 나이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고, 삶의 터전은 만주에서 함경도로 옮겨지게 되었다. 당시 한국전쟁 이후 피폐해진 북한은 전후 복구를 위해 많은 인력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만주의 동포들을 적극 받아들였다. 전후 복구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젊은 일꾼이 필요하기 마련이기에 마을에서 젊은 세대였던 것 결혼한 권사님의 가족이 자연스럽게 북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렇게 권사님은 어머니와 다른 가족과 헤어져 북한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사실 당시만 해도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국경 개념이 희박했고 북한으로의 이주는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 이주가 가족의 운명을 크게 바꿔놓을 줄은 당시는 알지 못했다.

권사님의 그 이후 가정사를 이 글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기는 여건상 쉽지 않은 일이다. 다만 그리 많지 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아들딸들을 억척같이 키워낸 우리 내 어머니로서의 힘겨운 삶을 살아왔다고 간략하게나마 정리해본다. 그 고단한 삶에서 힘이 되었던 것은 기억도 희미한 어머니의 신앙이었다.

"어머니께서는 밥을 짓던지 국을 끓이던지 죽을 쑤던지 어떤 음식을 하시던지 음식을 그릇에 담기 전에 꼭 국자로 냄비에 십자가를 그리셨어요. 당시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원래 그렇게 하는가보다, 그렇게 그리는 것이 무슨 좋은 것이 있나보다 하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도 평생 그렇게 음식을 할 때마다 십자가를 그렸지요"

후에 탈북을 해서 그 십자가가 바로 어머니의 신앙의 표현이요 기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권사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잊고 지냈던 북한에서의 인생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잊지 않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셨다고 고백한다.

"제가 홀로된 여인의 몸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다 키우고 또 산과 강을 건너 남한 땅에 와서 좋은 세월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시며 돌보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그리고 뜻은 몰랐지만 그 기도의 행위를 따랐던 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셨기에 그 인생 여정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이어가시던 권사님은 잠깐 숨을 고르시더니 찬양을 부르시기 시작하셨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찬양을 마치고 권사님께서는 이 찬양이 자신의 고백이며 얼마 전 본인이 많이 아플 때 이 찬양을 통해 힘을 얻었다면서 담담하게 이야기하셨다. 하나님의 선하신 돌보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듣는 우리의 가슴 깊이 느껴졌다.

하나님의 기적은 북한에서의 힘겨운 삶을 이겨내게 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권사님에게 북한을 벗어나고 중국에서 한국으로까지 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



〈동남아를 통한 탈출을 위해 가파른 산길을 헤치는 탈북자의 모습 (KBS)〉

"먼저 한국에 넘어온 딸이 걱정하면서 이야기하더라구요... 한국에 오려면 중간에 험한 산도 타야하고 여정이 매우 고된데 괜찮겠냐구요. 저는 호기롭게 네가 넘었는데 나라고 못하겠니? 하고 큰소리쳤지만 사실 걱정도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국에서 동남아로 넘어가는 탈출의 길, 여러 검문을 통과하고 험한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그 길에서 저를 붙잡아 주셨고 안전하게 한국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교회를 출석하면서 기억 속에 남아있는 흔적,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기억하며 믿음 생활을 제대로 회복하게 된 권사님은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꼭 한 가지 질문을 하셨다고 한다.

"밥을 그릇에 담을 때 먼저 하는 일이 뭐냐고 꼭 물어봤어요. 대부분 아무런 인식 없이 그저 밥을 담는다고 했는데 한 간호사님 가정이 밥을 담을 때 주걱으로 십자가를 그리고 담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때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권사님에게 좋아하는 성경구절이 있으시냐고 물었을 때, 권사님은 주저함 없이 시편 1편을 암송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주일학교시절부터 외우는 말씀이지만 역사의 질곡 속 권사님의 삶을 들은 우리에게 권사님이 암송하시는 시편 1편의 말씀은 의미 있게 다가왔다. 원래 권사님은 글을 읽지 못하는 까막눈이셨다고 한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가

운데 하나님께서 눈을 뜨이게 하셔서 이제는 느리게나마 성경을 읽으신다고 한다. 방문한 그 날에도 권사님의 머리맡에는 조그마한 다과상 위에 놓여진 성경책과 안경이 자리하고 있었다.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권사님의 주요한 일과가 되었다.

이제 권사님은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저희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참 세월을 잘못만 나서 고생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는 아무리 본인이 능력있고 인품을 갖추었더라도 개인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밀어닥쳤지요. 반면 저는 아버지만큼 뛰어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세월을 만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좋은 세월을 복녔의 동포들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할머니의 기도제목은 민족을 향해, 더 나아가 세계에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한 평화의 기도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하루 속히 그리스도의 계절이 북한을 넘어 세계 도처의 박해받는 지역들로 퍼져가도록 이를 위한 우리의 무릎 꿇음이 필요함을 다시금 상기해본다.

인터뷰 가운데 인상 깊었던 또 다른 점은 바로 권사님을 향한 교회의 돌봄과 사랑이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 같은 늙은이가 뭐 특별하다고 이렇게 챙겨주고, 자주 방문해주고, 신경써주시니 과분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한국교회가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 방안 중의 하나로 탈북 동포를 향한 사랑의 실천이 꼽힌다. 그렇지만 많은 교회들이 머리로는 탈북민 사역의 필요성을 알지만 실제 교회 내에서 이들을 사랑으로 보듬고 한 공동체로 살아가는데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어떤 특별한 헌신의 부족 보다는 의외로 작은 관심과 사랑의 실천의 부족이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터뷰 중간에도 수 번이나 권사님의 전화기가 울렸다. 교우들이 권사님의 안부를 묻는 연락이었다. 청년부에서도 월에 한 번씩 찾아와서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이러한 사랑과 관심은 권사님에게 큰 격려가 되었다고 한다. 코로나19 시국으로 인해 교회를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교회에서 우편으로 보내주는 주보가 너무 감사하다며 교회에서 나를 잊



지 않고 생각해준다고 좋아하시는 권사님의 순수한 모습 속에서 겸손함에 대한 깊은 인상과 함께 필자도 하나님의 민족복음화와 통일을 향한 부르심에 순종하여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는 내가 되어야 하겠다는 다짐을 해 보았다.

이제 세월이 조금 더 지나면 권사님과 같은 생생한 역사의 이야기를 들려줄 분들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그렇지만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함께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리고 주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 충성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억압과 박해 가운데 잊혀진 듯 보이는 당신의 자녀들을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는다. 지금도 북녘에는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탄압과 박해로 인한 아픈 가족사를 간직한 채 살아가는 후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하루 속히 통일의 그 날이 밝아오고 북녘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유로운 찬양과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 함께 두 손을 모으자. 🙏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 49:14-15)

+ 김정은, 여맹대회에 서한…“여성 사랑하고 돕는 기풍 세워야”



〈북한 노동당 외곽조직인 '사회주의여성동맹' 제7차 대회 모습 (사진: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월 20-21일 열린 '사회주의여성동맹'(여맹) 제 7차 대회에 서한을 보내 여성에 대한 존중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서한에서 “여성들을 존중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훌륭한 미덕이며 사회의文明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라며 “당 조직들은 사회적으로 여성들을 사랑하고 내세우고 도와주는 기풍을 세우며 여성들을 위한 시책들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 적령기의 여맹원들을 사회에 적극 진출시키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면서 “사회에 진출하는 것은 당과 조국의 은혜에 보답하는 충성과 애국의 길이고 자신과 후대들의 앞날을 위한 행복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맹 조직들은 인민군대 원호사업을 잘해나가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강도 높게 벌여야 한다”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운명, 자신과 자식들의 생사문제로 여기고 그 자그마한 요소와도 즉시에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이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주부·며느리·아내·어머니로서 책임과 본분을 다하라는 내용부터 치마저고리를 즐겨 입고 옷차림·몸단장을 시대적 미감에 맞게 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세세하게 주문했다.

또 “아들딸들을 많이 낳아 키우는 것은 나라의 흥망, 민족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대사”라며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우는 여성들을 적극 도와주고 우대하는 기풍을 확립하며 국가적인 보장대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국가와 인민 앞에 연이어 겹쳐든 도전과 온 나라 가정들에도 생활상 곤란이 덧쌓이게 했다”면서 경제난 속에서 여성들이 역할을 해온 데 대해 치하했다.

여맹은 당 외곽기구인 4대 근로단체 중 하나로, 비당원인 30세 이상 전업주부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단체다.

북한은 최근 식량난 속에서 대표적인 쌀 생산지인 황해남도 농장에 전업주부 약 1만 4천 명을 정착시키기로 하는 등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성들의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참고: 연합뉴스, 6월 22일) 🙏

+ ‘제1비서’ 신설·‘선군정치’ 삭제…北 노동당 규약 개정



〈올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 당시 당규약 개정 소식을 전한 노동신문 기사〉

북한이 노동당 규약이 개정되었다. '노동당 규약'은 당국가체제인 북한에서 헌법보다도 우선시되는 최상위 규범으로 여겨진다.

개정 당규약의 특징으로는 먼저 김정은 총비서 다음 직책인 '제1비서' 직을 신설하고, 이를 총비서의 '대리인'으로 명시했다. 특히 '당 중앙위 제1비서는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이다'라고 명시해 제1비서가 당 비서들 가운데 으뜸이자 당내 2인자임을 공식화했다. '제1비서'라는 이름은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노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한 이후, 2012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졌던 노동당내 직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후계구도까지 내다본 직책이라는 해석이 있다.

개정된 당규약은 김일성·김정일의 이름과 주체·선군과 같은 이른바 '선대'의 핵심 용어가 크게 줄었다. 서문에서 기존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상과 구체적 업적을 나열했던 부분이 삭제됐고, 이들과 김정은 총비서의 이름 대신 '위대한 수령들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반을 중심으로 한다'는 표현으로 대체됐다. 또 김정일 시대의 통치 키워드였던 '선군정치' 대신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강조하고 있는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치방식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군이 당의 영도를 받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기존에 '군 총정치국은 인민군당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 당 중앙위원회 부서와 같은 권능을 가지고 사업한다'는 대목이 삭제되고 그 위상이 격하된 것이 대표적이다. 선군정치 대신 당 중심의 국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김정은 시대의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당규약은 국방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병진노선' 대신 '자력갱생'을 전면에 내세웠다. 기존에 '당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을 틀어쥐고'라는 대목은 '당은 자력갱생의 기치 밑에 경제건설을 다그치고'라는 구절로 바뀌었고 이어 '공화국무력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하고 자립적 국방공업을 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끊임없이 다져나간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른바 '통일과업'과 관련된 내용도 수정됐다. 기존에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의 과업

을 수행하는 데 있다'는 내용이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한다는 구절로 대체되었다.

또 '통일전선' 부분에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 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 군국주의의 재침 책동을 짓부시며'라는 문구는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 군사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

산하며 온갖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로 대체됐다.

이와 함께 '조국을 통일하고'는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로,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는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대남 인민 연대를 상징하는 '우리민족끼리'라는 표현이 사라졌고 '남한 인민의 투쟁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삭제됐다. (참고: KBS, 6월 2일)

+ 문 대통령 “북한 동의 시 백신공급 협력 적극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4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과 관련해 "북한이 동의한다면 백신 공급에 협력할 것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판 테어 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 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협력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한국은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그러나 백신 접종에 고소득 국가들이 앞서간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코로나에서 해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과 백신 글로벌 파트너십 합의에 따라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가 돼 백신 공급을 늘리고, 전세계 코로나 퇴치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한국이 글로벌 허브 역할을 할 경우 북한도 당연히 협력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북한의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참여를 제안한데 이어 백신 공급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북한이 이에 호응할지 주목된다.

+ 북미대화 시각차 확인한 성 김 방한...극적 돌파구는 없었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6월 23일(한국시간) 오후 4박 5일 방한 일정을 끝내고 출국했다. 지난달 임명된 대북특별대표 자격으로 첫 방한이자 조 바이든 행정부의 4월 말 새 대북정책 검토 완료 선언후 북미 대화재개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성격이 강했다.

출발은 나쁘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17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대결보다는 대화에 방점을 찍은 첫 공식반응을 내놓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신호”라면서 대화를 위한 북한의 분명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고 화답했다.

곧이어 6월 19일 한국에 도착한 김 대표도 대화 제의와 유화적 제스처 속에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연이어 냈다. 김 대표는 6월 21일 “북한이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는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엔 한미가 대북 정책 조율을 위한 협의채널인 ‘워킹그룹’을 출범 2년 여만에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워킹그룹은 북한이 “남측이 스스로 제 목에 걸어놓은 친미사대의 올가미”라고 비난한 만큼 남북관계의 숨통을 틔울 수 있다는 대북 유화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북한의 반응은 냉담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워킹그룹 종료 검토 보도가 나온 당일 담화에서 “스스로 잘못 가진 기대는 자신들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는 찬물을 끼얹었다. 설리번 보좌관이 김 위원장의 ‘대화·대결’ 발언을 ‘흥미로운 신호’라고 한 데 대해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다. 미국은 아마도 스스로를 위안하는 쪽으로 해몽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응수했다.


리선권 북한 외무상은 김 대표가 출국한 지 몇 시간 뒤인 6월 23일 담화에서 미국과의 어떤 접촉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빼기를 박았다. 일련의 흐름은 방한 기간 김 대표의 각종 대화 제의에 북한이 이를 거절하며 일축한 모양새다.

이는 북한 입장에서 김 대표가 내놓은 메시지가 북미 대화 재개 조건에 턱없이 모자란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 방한 기간 김 대표는 “우리는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며 제재는 유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

게 밝혔다.

특히 백악관은 미국시간 21일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한다는 통지문을 의회에 보냈다는 자료를 내기도 했다. 이는 2008년부터 의례적으로 매년 이뤄진 것이긴 하지만 김 대표 방한 기간과 맞물려 북한과 대화를 위해 선물 보따리부터 안기진 않겠다는 미국의 의중을 드러낸 것이

라는 해석을 낳았다.

외견상 북한은 미국을 향해 좀 더 성의 있는 선제적 조치를 요구하는 반면 미국은 북한이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하라는 모양새여서 대화 재개의 접점을 찾기까지 추가 탐색전과 기 싸움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대목으로 보인다. <참고: 연합뉴스, 6월 23일> 

+ 북한, 핵탄두 보유량 추정치 최대 50개로 증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북한이 올해 1월 기준으로 보유한 핵탄두는 최대 50개로 추정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14일(현지시간)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비롯해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9개 국가를 핵보유국으로 분류하면서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수는 40~50개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SIPRI는 북한이 핵탄두 보유 관련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까닭에 ‘핵분열 물질

배출량’을 근거로 추산해 본 불확실한 자료라며 ‘추정치’라는 단서를 달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핵탄두 수(올해 1월 기준)는 지난해보다 320개 줄어든 1만 3080개로 파악됐다. 하지만 해체 예정 핵무기를 제외한 실제 핵탄두 수는 9620개로 전년(9380개)보다 소폭 늘어났다. 실전 배치된 핵무기도 3825개로 지난해(3720개)보다 100여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핵탄두 수에도 북한 보유량은 합산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북한의 핵개발이 지속되는 건 분명하다는 게 SIPRI의 분석이다. SIPRI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국가 안보 전략의 핵심 요소로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증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2020년의 경우 핵탄두 폭발 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은 하지 않았지만 핵물질 생산과 단거리·장거리 미사일의 개발은 계속 이어갔다”고 덧붙였다. <참고: 서울신문, 6월 14일> 

+ 1년간 미국 망명 탈북자 '0명'... 코로나로 끊긴 탈북 길

지난해 3월 이후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탈북민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무부 난민 입국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난민 수용을 중단한 뒤 같은 해 7월 말 재개했다. 하지만 이 중 북한 출신 난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은 지난 2008년 38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이후 감소 추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 1명, 2018년에는 6명이었다. 그러다 2019년에 0명을 기록했고, 지난해 1월과 2월에 각각 1명의 탈북민이 난민 인정을 받고 미국에 정착했다.

한국으로 망명하는 탈북민 역시 크게 줄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은 총 229명이다. 여성이 157명, 남성은 72명으로 여성이 두 배 이상 많았다.

한국행을 택한 탈북민은 2009년 2914명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2010년 2706명, 2015년 1275명, 2016년엔 1418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후 2018년 1137명, 2019년에는 1047명으로 감소했다. 그리고 지난해엔 229명으로 대폭 줄었다.

이렇게 탈북민 망명이 급격히 줄어든 데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크다는 평가이다. (참고: BBC Korea, 6월 8일)

+ 북한 GDP 대비 군사비 지출 세계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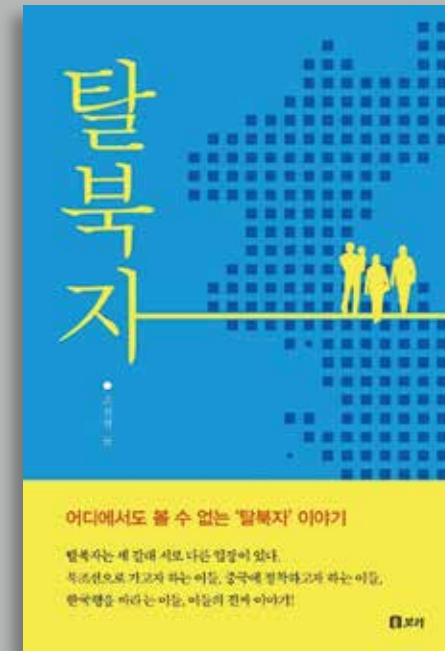


북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군사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기준 한국의 군사비 총 지출액은 세계 10위로 나타났다.

호주 시드니에 본부를 둔 글로벌 연구기관인 경제평화연구소(IEP)가 18일 공개한 '2021년 세계평화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GDP의 24%를 군사비로 지출해 조사 대상국 중 1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은 레바논(13.5%), 오만(10.8%), 리비아(10.5%) 등과 비교해도 차이가 컸다.

이 연구소는 지난 15년 동안 사회 안전 및 안보, 국내외 갈등 상황, 군사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평화지수'를 매긴다. 올해 북한은 163개국 중 151위로 '매우 낮음'으로 분류됐다. 아프가니스탄이 '가장 평화롭지 않은 나라'로 꼽힌 가운데 예멘, 시리아, 남수단, 이라크, 소말리아 등이 최하위권을 형성했다. (참고: 한국경제, 6월 18일)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목: 탈북자
저자: 조천현
출판사: 보리출판사
발행일: 2021년 01월 25일
가격: 16,000원

최근 오랜만에 “탈북자”에 대한 책이 출간되었다. 2010년대 후반부터 국내정착 북한출신 주민을 “탈북민”으로 부르는 추세이므로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탈북자”라는 단어는 최근에는 잘 쓰이지 않는 단어이다. 그럼에도 “탈북자”라는 단어는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과 구분하여 북한을 탈출하여 제3국에 머무르는 북한주민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으며 이 책이 주로 다루는 시기인 1990년대 후반에서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이전까지 북한선교와 북한인권문제에 천착한 이들에게 각인되어 강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단어이기도 하다. 이 책의 저자 조천현은 1997년부터 조-중 접경지역을 다니며 우리 민족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영상과 사진을 촬영해온

작가이자 독립PD이다. 그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탈북자들을 만났으며 2년에 걸쳐 100명의 탈북자를 인터뷰 했는데 한 사람 당 최소 세 번 이상을 만나 설문을 했다고 한다. 이 인터뷰와 설문들이 이 책의 1부와 부록에 소개된다. 이 책은 2부로 구성되어있는데 1부에서는 탈북자, 그들의 이야기, 2부에서는 탈북자를 둘러싼 이야기를 다룬다.

최근 국내정착 탈북민들의 활약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그들의 이야기가 대중에게 널리 소개되고 있다. 국내정착 탈북민의 대부분은 이 책 1부의 구분에 의하면 “한국행을 바라는 탈북자” 출신들이며 국내에 소개된 탈북자의 이야기들

역시 대부분 이들의 이야기이다. 하지만 이 책은 2000년대 당시 중국에 다수 존재했던 “북조선으로 가고자 하는 탈북자”, “중국에 남고자 하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과거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쏟아져 나오던 시기에는 북중국경의 비법월경이 지금과 다르게 매우 자유로웠다. 대다수의 탈북자들은 당국의 적발을 피해 북한과 중국을 오갔으며 많은 탈북자들은 중국에서 돈을 벌거나 불일을 보고 큰 문제없이 북한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다. 이 때 중국체류가 길어진 탈북자들은 한국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고 한국행을 고민하게 된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한국행을 결행하여 한국에 입국하거나 중도에 발각되어 북송의 길에 오른다. 우리가 알기로는 한국행을 바라지 않던 이들은 주로 차마 한국행 용기가 안 나는 사람, 한국에 도착한다고 해도 적응할 자신이 없는 사람. 고령이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한국행을 할 수 없는 사람. 자식과 남편을 두고 떠날 엄두를 못내는 여성 등이 있었는데, 이들은 중국에 마음을 붙이고 남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저자에 의하면 당시 중국거주 탈북민중 많은 수는 한국행보다 북한으로 돌아갈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2000년대 중반 저자가 만난 한 탈북민이 저자에게 이런 말을 한다. “사람 저울질하지 말란 말입니다.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나를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온 사람으로 보지 말란 말입니다. 사회주의 체제가 싫어서 두만강을 건너온 것은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40쪽) “타국에서 이밥에 돼지고기 국을 먹어도 편하지 않아요. 제 집에서 강냉이밥에 소금국 먹어도 살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고생하고 모욕당하다 보니까 이러한 생활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생활이 아무리 좋다 해도 후회됩니다. 그래도 제 조국이 조국이지. 젊은 나이에 죽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아무 때나 어쨌든 내 돈 벌어서 노력해서 꼭 나간다! 그 생각입니다.”(50쪽) 이는 당시 중국으로 건너온 많은 탈북자들의 마음상태였을 것이다. 물론 이들 중 많은 이들은 중국생활을 통해 북한의 체제와 사회주의에 대한 생각이 변하였고 남한행을 선택하였겠으나, 이러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북한으로 돌아가거나 아직도 중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탈북자들이 있다.

이 책의 2부 ‘탈북자를 둘러싼 이야기’는 중국 내 탈북자들과 그들을 둘러싼 이들의 어두운 부분을 다룬다. 국정원 직원이었던 이 모 씨와 박 모 씨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연변 두레마을 선교사로 위장 활동한 사건, 2001년 6월에 있었던 북으로 송환된 탈북자 일곱 명 가운데 중국으로 재탈북했다고 주장하는 탈북자 박충일의 ‘가짜 김운철 행세 사건’ 2003년 11월에 있었던 국군 포로 전용일 부부라며 가짜 부인 ‘탈북자 최응희 끼워 넣기’, 2004년 2월에 있었던 ‘북한 생체실험 이관서 문서조작’ 의혹, ‘의용군 출신 간호사 이주임 사건’등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탈북자 관련 사건들을 소개한다.

이 책의 내용 중 탈북자를 올리는 사람들의 대

표적인 사건으로 ‘탈북난민운동본부 임국장 고소사건’과 ‘예랑선교회 사기극’을 소개한다. ‘임국장 고소사건’은 2000년대 중반 탈북민을 돕는 일을 감당하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산하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보호국장 임 모씨가 탈북자들의 남한행 과정에서 수많은 잡음을 일으켰고 이후 탈북자들에 의해 그의 과오가 드러나 고소를 당한 사건이다. 결국 2006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실행위원회에서는 한기총의 위상과 품위에 상처를 줬다고 판단해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를 폐지했다.

예랑선교회는 2000년대 초부터 ‘죽음을 각오한 북한 선교’, ‘북한 주민들의 순교와 탈북’ 등을 소재로 인터넷에 글을 올려 후원금 20여억원을 모아 가로챘다. 하지만, 2006년 신도에 의해 고발돼 재판을 받으면서 그가 올린 글의 대다수가 거짓임이 밝혀졌다. 이후 2008년 이 단체의 대표는 대법원에서 사기판결을 받았다. 예랑선교회의 사기극은 2000년대 중반부터 북한선교계에 널리 알려졌던 사건이다. 이 책의 저자는 2003년 9월부터 1년간 예랑선교회의 행정간사로 일하며 대표의 비리를 접하고 이후 이를 폭로한 J목사와의 심층 인터뷰,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중국에서 예랑선교회 대표의 사역을 도우 경험에 있고 이후 법원재판과정에서 다시 한번 그에게 이용당한 조선족 K전도사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당시 사기극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저자가 말하듯 이 책 1부에 실린 글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며 중국으로 나온 탈북자들이

이야기다. 현재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과는 상황이 다르다. 시간이 흐르면서 탈북자들 삶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다. 저자와 인터뷰한 이들 중 많은 이들은 마음을 바꿔 남한행을 택하거나 이후로 발각되어 북송되었을 것이며 그 중에는 운명을 달리한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탈북자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입국한 연도와 탈북 연도를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하듯 이 책에 실린 인터뷰가 진행된 연도와 사건이 발생한 연도를 감안하고 읽어야한다. 그래야 탈북자들을 이해하는데 혼선이 없을 것이다.

이 책의 2부 탈북자를 올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당시 탈북자들과 그들을 둘러싼 어두운 면들을 깊이 있는 탐사를 통해 드러낸데 의미가 있다. 이 책의 앞부분에 실린 추천사에서 캐나다 요크대학교 사회학과 박현옥 교수는 “탈북과 북한 인권을 탈냉전 신자유주의 시대의 서블라임현상(sublimity, 숭고한 이데올로기 현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사회 한편에서 벌어지는 지옥과 천당을 방에 편히 앉아 영상으로 구경하듯 한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만 위험한 보편주의에 숨겨져 보이지 않던, 혹은 보이지 않으려고 했던 시대의 진상을 마주할 수 있다.” 라고 말한다. 이는 과거 탈북자 문제의 담론을 거의 독점하다시피한 인권단체들과 선교단체들에 의해 전해진 탈북자의 실상이 탈북자세계의 한쪽 면만 다루었다는 비판이자 그들이 다루지 않던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 저자가 다룬 것에 대한 찬사일 것이다. 그러나 박현옥 교수가 저자에게 보내는 찬

사는 1990년대 초반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 나선 인권단체와 선교단체들이 이미 받았던 찬사이 다. 우리 사회 한편에서 벌어지는 지옥과 천당을 방에 편히 앉아 영상으로 구경하듯 하던 한국과 서구의 시민들의 그 태도를 버리게 해준 것, 보편 주의에 숨겨져 보이지 않던, 혹은 보이지 않으려 했던 탈북자의 실상을 드러낸 인권운동가들과 북한선교단체들의 공로는 이 책의 저자, 추천사를 쓴 교수 모두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일반적인 상황과 예외의 경우를 혼돈하면 안 된다. 탈북자를 둘러싼 선교사들의 일반적인 상황은 많은 선교사들이 탈북자들을 조건 없이 도왔으며 선교사와 함께하기 원하는 탈북자들을 거두고 양육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일부 단체들의 기획탈북과 이벤트성 사역으로 인하여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촌극이 연출되기도 하였고, 선교사를 가장한 사기꾼으로 인해 북한선교를 하는 선교사들 전체가 도매금으로 매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다수 선교사들은 맡겨진 사명에 집중하였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사역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추방을 당하는 등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다. 이 책의 2부는 북한선교 현장의 “예외”적인 어두운 사건들로 가득 차있다. 이렇듯 일반적인 사례들을 배제하고 예외의 사례들만을 나열하는 것은 독자들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 인도한다.

박경리의 소설 《토지》가 그리는 일제강점기 만주의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는 지금 중국동북지방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의 상황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소설에서 한 독

립군은 말한다. “동포에게 독립군을 빙자하고 사기치는 놈인들 왜 없겠소. 원수하고 내통하는 놈들이야 전부터 있어온 터이고.... 일하는 사람은 이름이 없소. 일하다 죽은 사람은 무덤도 없소! 이게 만주 바닥의 우리 독립군의 실정인데 대사는 뭐하겠다고 꼬치꼬치 알라고 덤비는게요!” (박경리, 토지 12권, 105쪽) 독립군 화자가 말하듯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름이 없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일하다 죽은 사람은 무덤이 없다. 일하다 죽은 이의 장례에는 같이 일하던 사람이 없다. 저자는 많은 탈북자들, 조선족들, 북한선교사, 북한인권운동가들을 만났겠으나 보안에 철저한 이들은 만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그 이유는 자기사역을 소중히 생각하고 아끼는 사역자들은 저자와 같은 기자, 연구원, 정체가 분명한 한국인을 절대로 만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역자들은 자신을 감추는 것에 능하므로 이들에 대한 소문도 잘 나지 않는다. 필자는 북한선교계의 일원으로서 이 책을 통해 드러난 저자의 탈북자문제에 대한 식견을 존중하고 저자의 노력에 대한 찬사를 보낸다. 이 책은 탈북자와 그들을 둘러싼 세계의 어두운 면을 그 어떤 책보다 잘 드러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책이 말하는 내용들이 저자와 같이 책이나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는 없지만, 현장에서 자신을 감추고 죽은 듯이 살아가며 탈북자를 위해 헌신하는 수많은 의인들의 활동과 그들의 이미지에 누를 끼치지 않기를 바란다. ☹️

1. 북한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이상승배적이고 억압적인 사상과 체제는 북한의 가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권위주의적인 가족 문화와 건강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가족간의 관계에 어려움을 미칠 뿐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놓고 있습니다. 거대한 영적 전쟁 속에서 선교사와 현장 사역자들이 주님의 대사로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잘 제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한국 교회가 통일과 민족 복음화를 바라보며 북한의 가정들을 하나님께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준비되도록 기도합니다.
2. 북한의 역기능적 가족 문화를 놓고 기도합니다. 북한의 배급시스템 붕괴 이후 여성의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었고 이는 가정 내 여권신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로인한 수많은 부작용도 양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혼의 증가가 있으며, 최근에는 흑시 모를 이혼과 그 수속의 편의를 위해 남녀가 가정을 이루며 살면서도 한동안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혼관계와 혼전동거의 증가는 가정의 안정성과 건강에 매우 악영향을 미칩니다. 북한의 가정이 회복되고 사실혼, 혼전동거의 문화가 없어지도록 기도합니다.
3. 북한선교를 위한 더 많은 일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요. 선교 현장에는 과거에 비해 탈북자들이 많이 줄었고 선교현장 당국의 통제도 강화되었습니다. 수년째 수많은 선교사들의 비자발적 철수가 이어지고 있고 남아있는 선교사의 사역도 일부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헌신된 선교사는 늘 필요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 일수록 남아있는 선교사들의 어깨는 무거워집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헌신된 북한선교사 후보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오픈도어선교회와 북한선교 현장에 준비된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4. 국제관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관련 인선이 마무리되고 지난 달에는 성 김(Sung Kim)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한하여 한,일정부와 협의하고 북한에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북미접촉과 관련해서도 접촉할 생각이 없다(북한), 접촉을 희망한다(미국)는 메시지가 반복해서 오가고 있는데, 이는 대화의 조건을 둔 외교적 수사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문제에 지혜롭게 대응하도록 기도하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북한의 체제를 변화시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5. 현재까지도 코로나로 인한 국경통제의 악영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코로나로 멈춘후 아직 재개되지 않는 사역이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동남아 국가들에 남한 행을 시도

북한 기도 제목

하던 탈북자들 중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는 탈북자들도 있습니다. 어서 국경통제가 완화되어 정지된 사역들이 재개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요.

6.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 북한은 장마로 인해 큰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되는 가운데 북한은 6월 15일 국가비상재해 최고단계를 선포하고 예년에 비해 매우 강화된 장마-태풍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올 여름 북한에 장마, 태풍 혹은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북한당국과 주민들이 이에 잘 대비하도록 기도합시다.
7. 국가안보와 사이버안보를 위해 기도합시다. 다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한국원자력연구원 내부 시스템이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김수키(kimsuky)'로 추정되는 IP를 통해 해킹 당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사이버공격과 해킹시도는 끊이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북한의 공격을 잘 방어해내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사이버공격과 해킹시도는 북한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이들과 선교단체에 대해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활동을 멈추도록, 선교단체들이 북한의 이러한 공격을 지혜롭게 회피하고 잘 방어해내도록 기도합시다.
8. 북한에 억류되어있는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리고 북한에 억류되어있는 조선족 사역자들의 석방을 위해 기도합시다. 또한 신앙으로 인해 정치범수용소와 교화소, 감옥에 갇힌 북한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기도합시다.
9. 오픈도어선교회 협력단체인 북방선교방송(TWR) 소속 한재민 선교사가 지난 6월 21일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고인은 오랜 기간 선교에 헌신해 온 사역자로서 최근 사역을 위해 해외 방문 중 갑작스럽게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남아있는 유가족들과 동역자들이 주님의 위로 속에 아픔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요.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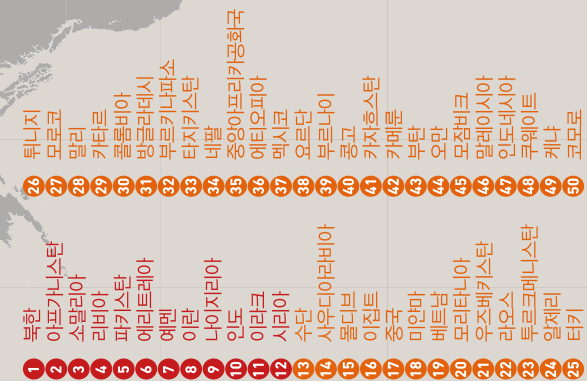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1년 7월 1일

Open Doors

World Watch List 2021 월드와치리스트 - 기독교박해지도

크리스천들을 가장 박해하는 국가 TOP 50



박해수준

● 극심한 수준의 박해 ● 매우 높은 수준의 박해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는 크리스천의 박해가 가장 심한 50개 국가들의 순위를 정한, 독립적이고 종합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오픈도어 분석가들이 187개 국가의 현상으로 부터 오는 실제적인 데이터를 분석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각 국가의 박해수준은 오픈도어가 이용하는 평가 시스템에 의해 기록됩니다. 이것은 불완전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 생활 가운데 얼마나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자유가 보장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오픈도어의 조사 방법과 결과는 국제종교자유기구(International Institute for Religious Freedom)에 의해 감사를 받습니다. WWL 2021 데이터는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기간에 해당됩니다.



"내 삶과 조국을 위해 내 마음과 몸을 다시 아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은 민족주의 사회에 정착하지 몇 년이나 지난 후, 더 중요하게는 많은 기도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열어놓은 나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오늘 열린 마음으로, 나는 북한에 대한 나의 꿈과 희망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습니다." 탈북 디모데 황제

"너희도 함께 간헐 것 같이 간헐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기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히13:3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

www.opendoors.or.kr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파송선교사 모집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북한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해외 파송 선교사 (여성 사역 부분: ○명 / 일반 사역부분: ○명)

> 주요업무

- 선교회에서 진행하는 현장사역 참여
(제자훈련, 지도자 훈련, 구제·구호 사역 등)
- 여성 사역의 경우 북한 출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복음사역 참여

> 지원자격

- 교회의 인정을 받는 선교사로서 해외 여행 및 체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정통 교단 소속 교육부 인가 신학교 졸업 예정이거나 목회학 석사학위 (M.div)를 받은 분
- 고난 받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있는 분
- 여성사역의 경우 여성만 지원 가능 (독신자 우대)
- 연령제한은 45세이나 예외 가능, 중국어 가능자 우대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신앙고백서 (홈페이지 양식 참조)
- 추천서 2부(담당 교역자 1부, 담당 교수 또는 소속 단체장 1부)
- 최종학력 증명서 및 관련 증명서 사본 (면접시 지참)
- 일반 건강검진 결과 (최근 2년, 면접 이후 제출)

> 기관 소개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참조

> 사역 조건

선교파송자는 선교회의 기준에 따라 사역 비용 및 현지 체류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원

> 모집 기한

사역자 모집완료까지

> 서류제출

- 이메일: info@opendoors.or.kr
- 우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문 의

다니엘 간사 (010-5107-8448), 이메일 (info@opendoors.or.kr)



한국 오픈도어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